

CONVENTION
SAFETY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3.02.159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뉴스 02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국제 설계 공모

기획 03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국제 설계 공모 초청 건축가는

뉴스 04

2월 3일은 대한민국 건축사의 날

세계를 향한 청년 건축사의 꿈 응원합니다

클릭 한번에 국가공간정보 '꽉'

종합 05

사랑에서 _ 부동산경기와 설계시장

건축사 만평

전북 지역 뉴스 06-07

전북대 한옥 세계화 날개짓 훨훨

전라북도 건축물해체 감리자 내달 공개

전주시민 집수리 학교 업니다

전남 지역 뉴스 08-09

전남건축사회 3월 8일 정기총회

장흥건축사회, 희망의 집짓기 올해도 이어집니다

광주 지역 뉴스 10-11

광주 상무, 풍암, 하남, 문흥, 일곡 등 5곳 '노후화 딱지' 떼고 새롭게 재정비 될까

광주건축사회 감사 경선

광주송정역 역세권 개발 토론회

오피니언 12

사랑&시선 _ 힘내라, 건축사

한 편의 시 _ 빛의 존재



부지 활용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광주 임동의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활용 계획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지명 설계 공모에 들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늘에서 바라본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모습. 광주시 제공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미래 도시 경관 창출 마스터 플랜 국제 설계 공모
국내외 8개 건축그룹 초청…내달 20일 결과 발표**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광주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이 국제 설계 공모에 착수했다. 세계적 건축가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최대 관심지역인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미래지향적 도시 경관 창출과 입체적 도시공간 계획 실현 등 다양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등이 참여한 협상조정협의회는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설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국제 지명 초청 설계 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 설계 공모는 지난해 11월 개발 사업자 측 협상 제안서 접수 이후 시와 민간 측 협상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5차례 회의를 거쳐 설계공모 일정, 지명 초청 대상 선정, 심사위원 구성 등 설계 공모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국제 설계 공모는 광주전남에서는 최초 사례이고, 국내에서도 두 번째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방·일신방직 부지 이용 계획에 대한 세계적 건축가들이 내놓을 창의적인 밀그림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조정협의회가 국제적 인지도와 전문성을 고려해 공모 지명 초청 대상으로 지정한 국내외 8개사는 △Benoy(베노이, 영국)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도ミニク 페로, 프랑스) △GMP

Architekten(지엠피, 독일) △Massimiliano Fuksas(마시밀리아노 푸스사스, 이탈리아) △NL Architects(엔엘 아키텍츠, 네덜란드) △UN Studio(유엔 스튜디오, 네덜란드) △Urban Agency(어반 에이전시, 덴마크) △포스코에이엔씨 건축사사무소 등이다.

협상조정협의회는 국제 설계 공모 관리 주체로 한국건축가협회를 지정했다. 한국건축가협회는 8개사를 대상으로 3월 15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17일 기술검토·작품심사를 거쳐 3월 20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설계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www.ji-c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계 공모 당선자(1개 사)에게는 랜드마크 계획 설계권에 대한 계약 우선협상권이 부여되고, 나머지 초청사에게는 약 1억 원 상당의 참가 보상비가 지급된다. 광주시는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를 거쳐 오는 7월까지 부지 개발사업자인 (주)휴먼스 홀딩스 피에프브이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 결과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30만㎡에 달하는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이용 계획에 대한 도시설계 마스터플랜 국제설계 공모에 거는 광주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상징의 공간이다. 원면에서 실을 생산하던 전방·일신 방직공장은

1930년대 중반 건축된 구조물로 광주·전남 산업화시대의 상징으로서 일제 수탈의 아픔이 배어있는 공간이다. 화력발전소와 물저장시설 원형이 보존된 전방·일신방직공장은 근대 산업유산으로서 장소적 역사성과 함께 광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관계로 미래 도시 발전의 중심지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이러한 장소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공성과 지역개발의 랜드마크로서 개발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가 공존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11월 이 공장 부지에 초대형 복합쇼핑타운인 가칭 ‘챔피언시티’를 개발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 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 구성을 통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옛 전방·일신 방직부지는 역사성으로 상징되는 공공성과 광주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한 지역 개발론과의 조화로운 방안 마련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국제 초청 설계 공모에서 혁신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 인사

△이용규 명 편집국장

‘공공성과 지역개발’ 혁신안 제시 주인공은?

■ 옛 전방·일신방직 국제 설계공모 참여 건축가와 주요 실적

광주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이용 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국제 지명 설계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초청 대상 건축그룹과 건축가들의 그간 주요 실적과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청받은 건축그룹과 건축가들이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건축물을 설계, 디자인한 주인공들이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광주 도시공간의 흐름을 그을 수 있는 기폭제로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이용 계획 국제 공모에 초대받은 국내외 건축그룹은 8개사이다.

1947년 설립한 국제적 건축 설계 인테리어 기업

베노이(영국)

영국 건축그룹 베노이는 건축가 고든 베노이가 1947년 설립한 국제적인 건축 설계 인테리어 기업이다. 국내 외에서 주목할만한 프로젝트로는 중국 상하이 ICC빌딩과 홍콩 엘리먼츠몰, 싱가포르 최고 쇼핑 중심지인 오차드 로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롯데월드타워, 스타필드하남, 서울국제금융센터 등을 디자인했다.



하남 스타필드

일상의 기발한 아이디어 적용해 재미난 건축 목표

엔엘 아키텍츠(네덜란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근거지로 하는 ‘엔엘 아키텍츠’는 자유롭고 실험적 성향의 건축가 집단이다. 이들이 만든 네덜란드 우트레흐트(Utrecht)대학 캠퍼스 카페 ‘배스킷 바(Basket Bar)’는 건축과 일상을 재미있게 결합시킨 사례이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인셀스트라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도 했다.



카멜레온 주거 복합블록

세계적 (아름다운) 명성 국립 프랑스도서관 설계

도미니크 페로(프랑스)

프랑스 도미니크 페로도 전세계 건축계의 스타이다. 30대 때 프랑스 국립도서관 설계로 전세계 건축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네 권의 책을 펼쳐놓은 듯한 모양의 프랑스 국립도서관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중의 하나로 꼽힌다. 2008년에는 이화여대 다용도 건축물 ECC를 설계했다. 여수의 예술마루도 페로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건축뿐만 아니라 상품 디자인 프로젝트도

유엔 스튜디오(네덜란드)

네덜란드 유엔스튜디오는 1988년 부부 건축가 벤 판 베르컬과 캐롤라인 보스가 설립한 ‘국제 건축 디자인 네트워크’이다. 건축과 실내 건축, 상품 디자인, 도시 개발과 공공 기반 시설 프로젝트 등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을 설계했다. 서울 한화 본사 건물 리모델링과 송도 G5 마스터플랜, 중국 허베이 싱타이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인도 뱅갈루루 Karle Town Centre 하이엔드 주거복합단지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 광주 신세계 복합 백화점 작품

지엠피(독일)

독일 GMP건축사무소는 1965년 마인하르트 폰 게르칸과 폴크빈 마르크가 함부르크에서 설립했다. GMP 최초 프로젝트는 독일 베를린 테겔 공항으로, 디자인의 그 기능적인 특성으로 인해 지금도 이용객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 베를린과 중국 천진 철도역사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광주 신세계 복합 백화점도 GMP건축사무소의 작품이다.



광주 신세계 복합 백화점

세계적 건축디자인 그룹…서울 MBC 개발사업 참여

어반 에이전시(덴마크)

덴마크 어반 에이전시는 2013년 설립된 세계적 건축 디자인 그룹이다. 박희찬 씨가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과 더블린에 활동 근거지를 두고 덴마크 오후스 아이스버그, 중국 우한 K2 테트리스 타워, 아일랜드 더블린 뉴랜드파크 마스터플랜, 덴마크 코펜하겐 미래도시 개발, 서울 여의도 MBC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신내 그린라인타운

화가 출신 건축가로 베니스비엔날레 디렉터 활동

마시밀리아노 폭사스 (이탈리아)

이탈리아 마시밀리아노 폭사는 화가 출신의 건축가다. 이탈리아 우주항공사무국과 EUR컨벤션센터 현상 설계 당선과 베니스비엔날레 디렉터로 임명되면서 세계적 건축가로 인정받았다. 그는 엠포리오 아르마니 홍콩, 밀라노 국제무역박람회장, 두바이 글로벌 커넥트, 중국 선전 국제공항 터미널, 오스트리아 빈 트윈타워 등을 설계했다.



중국 선전 국제공항 터미널

국내 유일 초대…인천 국제 업무타운 개발계획 수립

포스코에이엔씨(한국)

포스코 에이엔씨건축사사무소는 이번 국제 지명 공모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청받은 건축그룹이다. 지난 1979년 포스코그룹 계열사로 설립된 이후 미얀마 양곤 롯데호텔, 더샵 G5블럭 주상복합, 베트남 호치민 주거단지 마스터플랜, 인천 청라 중심상업용지 개발 계획과 인천 청라 국제업무타운 개발 계획 등을 수립했다.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계획

2월 3일은 대한민국 건축사의 날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협회 가입 1주년 기념식서 선포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를 포함한 전국 건축사들이 ‘2월 3일 건축사날 제정’을 통해 건축사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며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월 3일 건축사회관 1층에서 건축사협회 의무 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이날을 건축사의 날로 제정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승효상 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윤관석 국회의원과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정인채 광주건축사회장, 한형민 전남건축사회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건축사들이 참석, 건축사협회 의무 가입 법 개정 과정을 되돌아보고 의무가입 시대 건축사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짐했다.

석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무가입 개정 공포를 통해 회원 모두가 하나 돼 힘을 모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오늘로 끝내고 우리의 미래와 목표에 대해 말하고 행동해 건축사 르네상스시대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석 회장은 민간 대가 기준 법제화, 협회 회원 업무 지원 기능 최적화 및 집중화, 의무가입 기념사업 준비 및 협회 운영 구조 개선을 발표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2월 3일 개최한 협회 의무 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 기념식에서 내빈들이 건축사의 날 제정 펼침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공

건축사법은 20대 국회인 지난 2019년 첫 발의됐지만 회기를 넘겨 개정이 무산됐다. 21대 국회 2020년 10월 재발의 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22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해 2월 3일 개정 공포됐다. 이로써 건축사들의 단일 협회에 의무 가입 규정은 22년만에 부활하게 됐고, 이는 변호

사협회, 변리사협회, 감정평가협회에 이은 4번째이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은 건축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는 의무적으로 건축사협회에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신규로 건축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기존에 개업한 미등록 건축사는 2023년 8월 3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세계를 향한 청년 건축사의 꿈 응원합니다

국토부, 해외연수 지원자 모집…4월 대상자 발표

정부가 국내 청년 건축 설계 인력의 세계 유명 건축사무소 프로젝트 참여 등 해외 연수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우수한 건축 설계 인력이 세계적인 건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건축사이다. 접수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다. 신청 접수는 누리집 (<http://archi-training.kr>)을 통해 가능하다.

연수 기간은 최단 3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이며,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

지원한다.

참가 희망자는 현재 본인의 소속에 따라 재학생, 종업자, 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 △연수계획서 △포트폴리오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학위, 자격, 어학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면평가와 2차 면접 평가로 진행된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합격자 35명에게 개별통보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을 통해 100명 이상의 청년 건축인들이 미국과 독일, 프랑스와 스페인 등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에서 다양한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주역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 참여자 모집

사업당 500만원 지원…심사 거쳐 4월 선정

광주광역시는 ‘2023년 광주역 도시재생 주민 제안 1차 공모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역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광주역 도시재생 권역 내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 사업 발굴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공모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공간 조성 프로그램 등으로 사업당 5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역 사업권역 내 거주자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이나 청년모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단체이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월 24일까지다.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14일에 이어 21

일 오후 2시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어 주민공모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된 사업은 서류 심사와 선정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타당성, 실현 가능성, 효과 등을 심사해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관리 교육을 받은 후 4~5월 중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신청 서류와 사업 공모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블로그,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광주역 현장지원센터 070-7729-1103)

클릭 한번에 국가공간정보 ‘쫙’

국토부 K-Geo 구축 완료 이달부터 서비스



누리집상 구현되는 위치 기반 지도에 건축물을 클릭하면 해당 건물의 연면적과 건폐율, 용적률을 비롯한 용도와 공시가격까지 쉽고 간편하게 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공간 정보통합플랫폼(K-GEO) 마지막 3차 사업을 완료하고 2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사진)

3차 사업 주요 내용은 △토지소유권 등 부동산 관련 연혁정보를 기반으로 시계열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국가공간정보센터 보유 데이터의 생애주기 종합 관리체계 △3D 서비스 개발플랫폼 및 경관분석, 사각지대분석 등 3D 응용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구역 지정을 위해 과소필지, 노후건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후보지 분석 등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서비스 △부동산개발업 등 4개의 토지행정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등이다.

사랑에서 _ 아흔여덟 번째

부동산경기와 설계시장

날씨는 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건설업계의 겨울은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든다. 너 나 할 것 없이 부동산 거래절벽,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건설업체 출도산 등 부동산경기 침체 징후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히 나쁘지 않지만, 건축인으로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 설계와 건설은 불가분의 관계인 데다가, 설계시장은 건설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편차는 있겠지만, 코로나 대유행 시기의 건축설계시장은 타 업종에 비해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급등과 자재 파동 등 간접적인 변수로 인한 굴곡은 있었지만, 코로나 대유행이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었다. 비대면과 거리 두기가 대세였던 시기에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축설계 및 건설경기가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은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런데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건축설계시장에 한기가 돌기 시작했다. 아파트 가격하락과 미분양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량도 눈에 띄게 준 것이 체감되었다. 개인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세워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통계를 훑어보았는데, 개인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났다. 2022년 신축허가 연면적은 전년과 대비하여 6.85% 증가했지만, 아파트의 증가율이 22.91%였던 반면에,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은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신축허가 연면적은 전년과 대비하여 6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가장 감소 폭이 큰 12월의 경우는 1년 전보다 67.81% 수준에 불과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예상하는 것처럼 아파트가 주도하는 올해의 부동산경기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고, 그에 따라 아파트건설 경기도 침체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게다가 장기간의 사업 준비 기간과 시공 등을 고려할 때 대기 물량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화를 예단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는 것도 우려된다. 거래절벽과 가격하락 및 미분양이 속출하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에도 아파트의 신축허가 연면적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예이다. 반면에, 벌써부터 바닥이라거나, 하락장이 매입 적기라고 주장하며 투자 또는 투기를 조장하기도 하고, 규제 완화를 외치는 언론사나 전문가도 있는데, 어떤 의도로 그러는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설계시장은 건설경기와 대체로 연동되어 있기에 현재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다소간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고, 아파트설계 비중이 큰 경우는 그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다. 위안이라면, 건축설계는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축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비교적 다양화 및 유연화되어 문화·예술·연구 등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도 있는 역량이 있다 는 점이다.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온전히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변화된 생활 환경에 걸맞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서재형 건축사(자문위원. archiseo@nate.com)

건축사 만평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름에
반석기조이엔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침하지반보강/복원
Ecosm 지반개량
마이크로파일
팽이기초공법
로타리파일(헬리컬)
강관암입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건축문화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편집인	박주현
부편집인	임현정, 육광돈, 임태형
자문위원	박홍근,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편집국장	이용규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희, 임용훈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 및 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
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사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영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덕진공원 연화정

임채엽 건축사 / 태권브이 건축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겸다매1길 19
Tel. 063-451-8204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316-2 / 대지면적 : 95,463㎡ / 건축면적 : 393.75㎡ / 연면적 : 393.75㎡ / 규모 : 지상 1층
주용도 : 관광 휴게시설 / 구조 : 목구조(한옥) / 주요 마감 : 한식기와, 화방벽(사과석)



한옥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전북대학교가 필리핀에도 진출한다.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전북대 고창캠퍼스에서 필리핀에서 건축할 한옥 자재를 선적했다. 이 날 배에 실린 한옥 자재는 목부재를 비롯해 기와, 석재, 연장 등 컨테이너 2대 분량이다. 이번 필리핀 한옥 수출은 베트남, 알제리, 호주 등에 이은 것으로 한옥으로 대표되는 K-HOUSE 세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선적된 자재들은 해운회사를 통해 25일간 운송 기간을 거쳐 필리핀에 도착하게 된다. 당초 이 자재들은 3개월 전 선적 예정이었으나 막판 검역 문제로 돌출돼 목재 훈증작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기됐다. 전북대학교는 이 자재를 이용해 필리핀 Ayala 그룹의 마닐라 대형 쇼핑몰 4층에 정자를 비롯해 한국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학교 기술진이 지난해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현지 조사를 완료했다. 한국정원 조성에는 한옥 과정 수료생들이 참여했고, 현지 조립에는 한옥 건축과 생들이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교육과 창업,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 전북대학교 한옥 기술의 필리핀 진출은 지난해 7월 아이라그룹 쇼핑몰에 한국정원을 조성을 골자로 콘크라츠 투유(CONGRATS 2U와 체결한 'K-TOWN' 프로젝트 협약에 따른 것이다. Ayala 그룹은 한국정원

전북대 한옥 세계화 날개짓 훨훨

이번엔 마닐라 대형쇼핑몰에 한국정원 조성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전북대 고창캠퍼스에서 필리핀에서 건축할 한옥 자재를 선적했다. 전북대 제공

을 한류 문화공연,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는 필리핀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남해경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검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필리핀 국민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 우수성을 보여주겠다”면서

“K-HOUSE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의 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는 국토교통부 한옥 설계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전주캠퍼스에서는 10여 개 한옥 관련 프로그램, 고창캠퍼스에는 우리나라 유일한 한옥 건축학부가 있다.



 (주)신화기술

건축인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및
지구단위 계획 업무일체

공동주택 및 택지사업에 따른
인허가 용역 업무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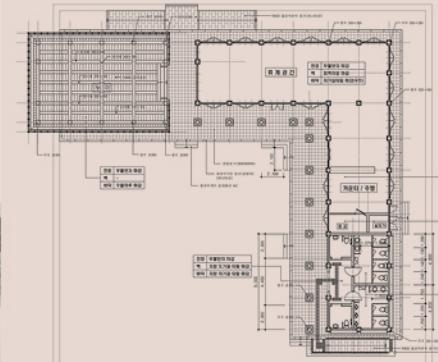
문의전화 : 061-334-8836



전주의 대표적 정자로 덕진공원의 덕진 연못에 위치하여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그자 배치로 남향의 마당을 주어 전통을 살리며 마당에서 소공연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였으며 현대적 화장실을 전통에 가미하여 이용자들의 요구를 담아냈다.

호수와 어우러지도록 일부 기둥을 물속에서 뽑아 올렸으며 습기에 대응하고자 누각 형식을 가미하였다.

이용자들의 심리적 편안함을 주기 위해 낮은 전통 담장으로 균경과 원경을 살렸으며 약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디테일도 잊지 않았다.



지상 1층 평면도

전주 시민 집수리학교 업니다

주거복지센터, 30명 모집 조기마감… 3회 추가 진행

전북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집수리 학교 기초 과정을 운영한다. 전주시가 1인 가구 증가로 시민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형 집수리 문화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시범 사업이며, 전주시 주거 복지센터가 위탁받아 시행한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10일 전주문, 3수도, 한국 주거 복지 사회적협동조합과 교육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거복지센터는 1회차 교육을 오는 3월 15일부터 23일까지(매주 수, 목) 총 4일 과정(1일 4시간, 총 16시간)으로 이론 및 실습 중심으로 진행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1차 집수리 교육생 모집은 당초 오는 2월 24일까지 주거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공고 이를 만에 모집 인원 30명이 몰려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1차 선정된 교육생 공지는 오는 2월 28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뤄진다. 주거복지센터



는 이번 기초과정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시민 120명을 대상으로 △공구 사용 △건축 목공, 생활 전기 등 기초과정(3회) △배관 방수, 단열 타일 등 공간 리모델링 심화 과정(1회) △집수리 봉사 현장 실습(2회) 등을 진행한다. 자세한 과정별 교육 일정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수시로 공지될 계획이다.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 감리자 내달 발표 권역별로 희망자 접수 완료

전라북도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를 모집했다.

건축물 해체 감리는 모집 공고 마감일('23.2.10.)까지 전라북도에 건축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 교육도 받아야 한다.

모집 권역은 전주/군산, 고창, 부안/익산, 정읍, 김제/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4개 권이다. 해체 공사 감리자 등록은 지난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사무

소 소재지를 기준 지역으로 하여 권역별로 신청이 이뤄졌다. 시·군에서는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에 접수된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정 기준을 정한다. 선정된 감리자는 3월 중 전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해체공사 감리로 지정되면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3개 층 초과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등의 해체에 대해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145명을 관리하고 있다. 기존에 등재된 설계사무소는 유효하지만 교육 이수 등의 자격 요건은 최신화해야 한다.

등재 변경, 휴업, 재개업, 폐업 등은 연중 상시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 회원동정

• 입회를 환영합니다

- 김진숙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지음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22길 38
- 이정환 건축사
이안 건축사사무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적천로 331
- 김선임 건축사
다온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봉로 7-1
- 류나라 건축사
가까운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2길 10
- 전용재 건축사
제이플랜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32
- 신영선 건축사
오아세(OASE)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46-8
- 이창현 건축사
(주)목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전북 덕진구 추단로 38

• 변경(소재지)

- 윤재영 건축사 / 인연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47, 311호
- 소재남 건축사 / 불魯安매스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무왕로 23길 14, 402호
- 조창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102
- 김규섭 건축사 / 토담 건축사사무소 / 전북 김제시 도직로 178, 2층
- 육광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채담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2길 19-5

• 변경(사무소명)

- 안호원 건축사 / (주)에이젠 건축사사무소
- 결혼

- 양정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창대건축 / 딸 결혼
- 2023년 02월 04일(토)

• 부고

- 양정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창대건축 / 부친상
- 2023년 01월 08일(일)
- 김성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례 / 장인상
- 2023년 01월 23일(월)
- 이형철 건축사 / 예원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2023년 01월 23일(월)
- 노관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상상 / 장모상
- 2023년 01월 29일(일)
- 박기두 건축사 / 나한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2023년 02월 02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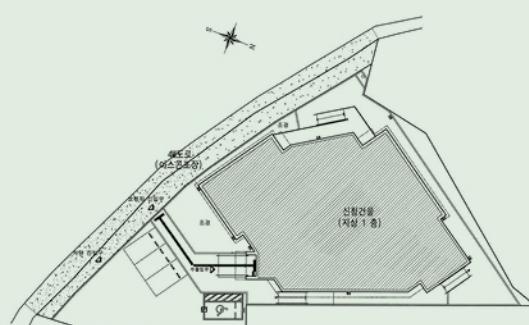
영암 기찬시네마

강길선 건축사 / 우광 건축사사무소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2-7
Tel. 061-472-1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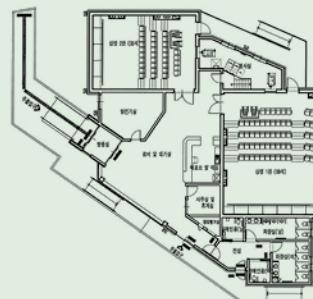


영암읍사무소 인근에 들어선 영암 기찬시네마는 전라남도가 2014년부터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도민 편의를 위해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많지 않은 군 지역에서 먼 도시까지 가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최신 영화를 관람하는 지역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기대하는 공간으로, 영암군이 총 26억 3천만원을 들여 영암군 동무리 26-30번지 일원에 건축되고, 지난해 12월 21일 개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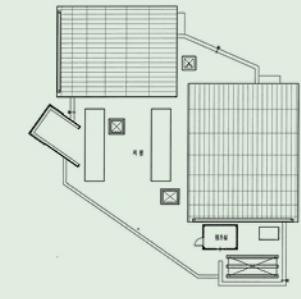
대지 면적 1천89㎡, 지상 1층, 건축면적 490.46㎡ 규모로 총 2개 상영관 93석(1관 58석·2관 35석)과 2D, 3D 등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소규모 작은 영화관이다.



배치도



지상 1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



전문소방 시설설계업 / 전문1종 설계업 / T.A.B 인증업체
종합 감리업 / 전문소방 공사감리업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정보통신, 기계설비)
전기통신 소방공사업 / 소방시설 관리업 / 톨코 전남총판 소방 내진자재

주식회사 한길이앤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51
T. 061-333-7119, 334-7119
F. 061-333-6119





지난해 열린 전남건축사회 정기총회 모습. 전남건축사회 제공

전남건축사회 내달 8일 정기총회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감사 선임 등 안건 처리

전남건축사회(회장 한형민)는 오는 3월 8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총회는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방식에서 탈피해 3년만에 회원 전체(381명)가 한 자리에 참석해 친목과 소통을 하는 자리여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개업 건축사들의 협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건축사법 개정 1주년과 맞물려 신입회원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의 참석이 관심을 모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회계 결산과 2023년 일반, 특별회계 예산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 만료가 되는 감사 1명과 대의원 9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감사 선임은 경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보 지명 추천으로 추인을 밟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퇴임 임원 공로패와 유공 공무원 감사패 수여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2월 3일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1주년을 맞아 제정 선포한 '2월 3일 건축사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공익 담당자로서의 건축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짐하고, 회원들의 단합과 소통의 시간도 갖는다.



장흥지역건축사회가 지역 사회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9년 희망가꾸기 31호 준공식 모습. 장흥지역건축사회 제공

장흥건축사회, 희망의 집짓기 올해도 이어집니다

3가구 대상 신축 설계, 인허가 재능기부

장흥지역건축사회(회장 강인수)는 올해도 장흥지역 주거 위기 가정에 안전한 보금자리 선물에 나선다. 장흥 지역건축사회는 장흥3의 희망가꾸기 주택 신축사업에 재능기부로 참여해 대상 가구 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진행한다. 올해 대상 가구는 3가정이다. 장동 북교에 있는 다문화 가정 부부의 노후화로 비가 새 생활이 어려웠던 집은 새롭게 탈바꿈하고 오는 2월 27일 집들이를 앞두고 있다. 또한 장흥 회진면 마을회관 2층에서 지내고 있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가정을 정남진 로터리 중심으로 인근에 집을 신축, 오는 3월 완공 예정이다. 87세 노인과 아들이 살고 있는 부산면의 저지대에 반파된 집은 지반 조성을 위한 성토 작업 등 건축에 들어가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가꾸기 주택신축사업은 장흥군이 2013년부터 생활여건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 유관 기관들과 연계해

펼치고 있다. 지난해까지 39호가 완공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흥중앙로타리클럽, EBS 나눔 0700, (사)행복한가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을 위해 유관 기관의 협조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설계 및 인허가는 장흥지역건축사회, 경계 분할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건축은 지역 로타리클럽과 봉사단체, 폐기물 수거 처리는 일등환경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강인수 장흥지역건축사회장은 “우리 건축사들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회원들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면서 “건축사들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선한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데 더 많이 노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 도내 지자체 건축직 공무원 56명 채용

내달 원서접수, 6월 10일 필기시험

전라남도가 ‘2023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계획’을 확정하고 유능한 인재 모집에 나섰다.

전남도는 오는 3월 8일 제1회 경력직공무원(수의직 7급/50명) 임용시험을 시작으로 신규 공무원을 채용 할 계획이다. 건축직은 2회 임용시험에서 신규 공무원이 대거 선발될 예정이다. 이번에 전남도가 채용하는 시설직별 건축직은 9급으로 전남도를 비롯해 전남 22개 시군에서 56명을 뽑게 된다. 시군별 채용 인원을 보면, 전남도 2명, 목포 5명, 여수 3명, 순천 7명, 나주 3명, 담양 3명, 곡성 5명, 영암 4명, 장성 3명, 고흥 4명, 화순 2명, 장흥 4명, 강진 1명, 해남 5명, 무안 4명, 진도 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필기 시험은 6월 10일이다.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 계획, 건축 구조 등 5개 과목이다.

수험생의 궁금증 해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 시험 채점 결과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에 공개하며, 공무원 임용시험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에서 접수하며, 거주지 제한 요건, 시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https://www.jeonnam.go.kr>) 시험정보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 건축심의 빨라져

국토부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 시행

올해부터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에 거쳐야 하는 건축심의 기간이 6개월 정도 빨라진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해 타위원회 심의가 있어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은 위원장이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지 않고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교통, 건축 등 지방자치단체 각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안이 중복되거나 위원회 간 상반된 의견이 나와 인허가 기간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현재 주택사업 시행과 관련해 받아야 하는 심의 건축, 경관, 교통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 등이다. 주택 건설을 위해 40개 넘는 심의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건축사업 심의 때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4주이다. 앞으로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 고시로 최소 6개월 정도 심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를 환영합니다

- 김윤하 건축사
두이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남해로 21-1, 2층

- 한민자 건축사
한가림 건축사사무소
전남 나주시 완사천길 18, 3층

- 정도건축사
도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영산로 93-1, 3층 355호



광주 지역에서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문흥, 금호, 상무, 하남, 일곡지구가 정부의 노후주택개선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광주 금호지구 아파트 모습. 광주시 제공

광주 상무, 풍암, 하남, 문흥, 일곡 등 5곳 '노후화 딱지' 떼고 새롭게 재정비 될까

정부 특별법 추진… 면적, 20년 이상 조건 충족
안전진단 완화 등 파격…성사까진 난제 수두룩

광주 상무지구를 비롯한 문흥, 일곡지구 등 신도시 지정 20년을 넘은 지역들이 정부의 특별법 조치에 따라 새롭게 재정비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최대 500%까지 등 파격적 혜택으로 기대감도 커지고 있으나 향후 광주시의 개발 의지와 난개발 우려에 의한 지역사회 여론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따르면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49개 택지지구 재정비를 위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가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이다. 재건축 연한이 30년보다 10년이나 더 짧다. 지역이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을 포함

해 전국 49개 택지지구가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광주에서는 상무 1지구(면적 252만㎡, 1999년 조성사업 완료)를 비롯한 하남, 문흥, 일곡, 풍암지구 등 5곳이 면적과 20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다.

특별법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준다.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준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 구역을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 복합개발도 가능케 한다. 정부는 2월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1차적으로 이미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광주 상무지구를 비롯한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은 내년 상반기 현재 진행 중

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의 특별법 조치에 해당 지역 주민 등을 중심으로 기대감은 높으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재난, 인력난 등 난개발과 형평성 문제 등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여야 이견도 커 국회 문턱 통과 여부 역시 관심거리다. 지난 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수도권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은 특례법 조치는 환영하나 정부의 기반 시설 구축이 우선돼야 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한 것에서 보듯 마냥 쌍수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5개 지역이 적용을 받는 광주시의 입장은 장고 상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사업 대상지 지정 권한을 받은 광주시가 사업 대상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해야 하는데 대상지 전체를 지정하기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 광주시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성동근생

허만수 건축사 / 사계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일곡로 41번길 35, 1층 / Tel. 062-573-3001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70-20, 670-27 / 대지면적 : 351.40㎡ / 건축면적 : 210.29㎡ / 연면적 : 596.73㎡ / 건폐율 : 59.84%
용적율 : 169.82% / 규모 : 지상 4층 / 주용도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광주건축사회 감사 경선

3월 24일 정기총회서 투표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감사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각 시도건축사회에 따르면 2명 감사 중 올해 임기 만료되는 1명의 감사 선임 절차를 순조롭게 밟고 있다. 감사는 협회와 신협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집행부를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임기는 2년이다.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3월 24일 정기총회에서 회원 선거로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3일까지 마감한 예비후보 등록 결과 김삼현 건축사(길 건축사사무소)와 임경희 건축사(건축사무소 이우. 이상 등록순) 등 2명이다.

본 등록이 2월 20일부터 24일까지여서, 출마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수도 있다. 오는 28일 3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후보 기호 추첨 일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북건축사회는 오는 3월 21일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하기 위해 지난 17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감사선거 공고와 함께 2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아 오는 27일 확정된 후보를 대상으로 총회일에 회원 492명의 투표로 선출할 예정이다. 전남건축사회는 경선 대신에 3월 8일 총회에서 단독후보 추천을 받아 추인받을 예정이다.

광주송정역 역세권 모색 토론회

내달 9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서

호남의 광역 교통망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송정역이 명실상부한 지역 발전의 축으로서 자리매김을 모색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3월 9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위민연구원과 이용빈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송정역 역세권 개발 토론회가 그것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광주시 건축심의위원회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조성우 박사가 발제를 맡고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 좌장으로 조진상 동신대 교수, 오주섭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김필성 LH광주본부 보상부장, 전재용 송정역세권 르네상스 사업단장, 이용규 광주전남북 건축문화사랑 신문 편집국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광주송정역은 지난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호남의 교통, 물류의 축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으로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실패한 이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산구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광주금호타이어 공장이 함평 빛



광주송정역 일대 모습. 광산구 제공

그린산업단지로 이전을 결정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광주송정역이 완벽한 이용객 편의 기능 시설 구축과 함께 도심공항 터미널 유치 등 통합적 환승체계 구축을 넘어 모빌리티 혁신 도심항공교통인 UAM 상용화도 준비하는 광역교통수단 통합서비스시스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시가 지난 1월 수립한 2040 도시기본계획에는 송정역 역세권 개발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광주발전을 위한 큰 틀의 도시 계획 수립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 이번 토론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 회원동정

• 입회를 환영합니다

- 김지혜 건축사
겨루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독립로226번길 13-2, 2층
- 한지웅 건축사
에이치바우 건축사사무소
광주 남구 서문대로 790, 상가 401동 209호
- 김미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미리미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B동 1403호
- 황권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에스트
광주 서구 매월2로 53, 13동 216호
- 김찬용 건축사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대남대로 473-2, 한빛빌딩 5층

• 퇴회

- 주형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삼정

• 결혼

- 강현구 건축사 / 조형 건축사사무소(주) / 차녀 결혼
- 2023년 1월 28일(토)
- 김진형 건축사 / (유)송림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2023년 1월 28일(토)
- 조두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프러스 / 차남 결혼
- 2023년 2월 4일(토)
- 최경락 건축사 / 라일 건축사사무소 / 차남 결혼
- 2023년 2월 11일(토)

• 부고

- 조휴환 건축사 / 수전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3년 1월 8일(일)
- 정재한 건축사 / 모건아트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3년 2월 5일(일)

본 건물은 '성경실사의 사옥'이다. 건축 주의 '업'도 디자인이기에 우리의 디자인을 전적으로 믿어 주었다. 건축주는 '붉은 벽돌과 단순함'을 선호하지 않음에도, 우리의 잘 정리된 설명과 이해를 돋는 도구-모형과 조감도 등-에 집중해 주었다. 지금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서로 많은 시간을 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모두가 만족하는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음에 감사하다.

1 균형생활시설 2 엘리베이터홀 3 화장실 4 주차장

1 균형생활시설-1 2 균형생활시설-2 3 엘리베이터홀 4 화장실

1 균형생활시설-1 2 균형생활시설-2 3 엘리베이터홀 4 화장실 5 테라스

1 균형생활시설 2 엘리베이터홀 3 화장실 4 루프탑

지상 1층 평면도

지상 3층 평면도

지상 4층 평면도

배치도

사랑&시선 _ 첫 번째

한 편의 시

힘내라, 건축사

건축사님들과 동지가 된 지 3주째가 됩니다. 지역 언론사 생활을 마치고 최고 전문가 집단의 오피니언 콘텐츠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건축사회와의 인연은 15년전 시작됐습니다. 옛 전남도청 자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문화 도시 활성화 방안이 지역사회의 최대 이슈였던 때입니다. 언론도 주요 취재 사안이었고, 스코틀랜드 에дин버러에서 영국 멘체스터, 세필드, 리버풀, 스페인 빌바오까지 현지 취재를 통해 건축물을 중심으로 문화 정책을 살펴 봤습니다. 해외 취재가 활발치 않은 시기여서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보도가 인연이 돼 2013년 광주건축사회 공로상을 받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광주건축사회와의 끈을 이어오면서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복지 를 위한 건축사들의 소명과 역할,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건축은 인류의 등장과 함께 살 곳을 찾으려는 본능에 의한 조치입니다. 동굴, 바위틈을 넘어, 성서 속의 무너진 바벨탑을 연상시키는 하늘로 쭉쭉 뻗은 마천루, 심지어 바닷속 레스토랑까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직사각형이라는 기준의 건축문법을 깬 건축물은 경이롭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탄생한 건축물의 중심에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건축사는 마술사 같은 종합예술가입니다.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은 망해가는 지역 사회를 살리기도 합니다. 스페인 빌바오 네르비온 강가에 위치한 구겐하임 미술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프랑크 캐리가 설계한 이 건물은 종이조각을 꼬깃꼬깃 접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항공모함이나 우주선처럼 보이기도 해서 보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철강산업의 쇠퇴로 쪼그라드는 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공간 정비 차원에서 건립된 미술관은 인구 35만 명 도시에 해마다 100만 명 넘게 전세계에서 관광객들을 끌어모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지역을 살려낸 건축물이라는 화려한 수사가 구겐하임미술관 앞에는 붙은 이유입니다. 지난 10년 전 방문했을 때 놀랐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건축가들의 무한한 창조적 힘은 공간 계획에서도 그 힘이 유감없이 보여집니다. 남미의 변방에서 세계 생태도시로 영예로운 간판이 붙은 브라질 꾸리자바시의 도시 디자인을 1971년 레네르시장을 비롯한 5명의 건

축사와 엔지니어 출신 시장들이 해낸 점에서 새삼 건축 전문가들의 경쟁력이 돋보입니다.

다시 우리나라 건축가의 현실을 되돌아봅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티브라는 자긍심은 어쩐지 공허한 초상 같습니다.

건축은 나라 경제를 떠받드는 내수 시장의 중요한 요소이고 서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건축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설계 시장은 열악합니다. 부실시공에 의해 사고가 터지면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이럴 때 건축사는 가시 방석에 앉은 기분입니다. 공적 영역을 수행하면서도 사업자라는 복합성으로 인해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허가권으로 대표되는 공권력의 행정은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만 강조합니다. 건축이 규제 행정이라는 갑과 을의 특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건축사들이 무한한 창조력과 안전, 품질 향상으로 시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그냥 업자로만 취급하는 식입니다. 일부 건축사의 일탈도 있었다고는 하나 행정의 독선과 무시는 건축사들의 비상의 날개를 꺽습니다. 이러니 세계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낼 건축물이나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을 받을 사회적 토양은 요원합니다. 지역에서도 스타 건축가를 키워내야 합니다. 일본 오사카가 세계적 스타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를 후원하고 육성한 것처럼 말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2월 3일을 건축사의 날'로 제정 선포한 것은 의미가 큽니다. 전국 1만 7,000여 명의 회원들이 한목소리로 건축사들의 권익을 확대할 수 있어서입니다. 건축사들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 등 의무가입 시대에 걸맞는 행동도 요구됩니다. 4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은 자연재해와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 실현과 탄소 중립과 맞물려 그린 건물, 각 분야에서 첫 GPT가 구현하는 깜짝 놀랄 현상과 맞물려 피할 수 없는 AI시대의 과제를 건축사들에게 묵직하게 던졌습니다.

올해 세계 경기 침체의 본격화 예고로 우리나라 건축시장에도 먹구름이 더욱 짙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건축사들의 내부 단결과 동료 의식이 중요할 때입니다. '건축문화사랑'도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전하는 건축사님들의 든든한 창이 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용규 편집국장



빛의 존재

濟堂 추원호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빛은 어떤 사물에 비추어야

자신이 빛임을 안다

빛의 존재는

암흑 속에서만 있고

어둠은 빛이 없어야 존재한다

침묵 속에 있던 사물은

자신을 깨우는 빛에 의해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사물에 빛이 닿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보석처럼 아름다울 모습일지라도

자신을 비추는 빛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니

말없이 바라보는 것보다

상대방이 빛이 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빛이 되자.

심재 준불연 EPS 단열재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건축 자재
KIRA 2022.6 ~ 2025.5



혁명

심재 준불연 EPS 단열재



DK보드-X는 10여년에 걸친 준불연 EPS 개발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주|디케이보드가 **심재시험방식으로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2022.2.11)에 맞춰 개발한 심재 준불연 단열재입니다.

열전도율 0.039W/mk 나등급

심재 준불연 DK보드



검색

 |주|대 광 판 벨 고객센터 **1855-2240**